

독서동아리 활동 결과보고서 (7월)

동아리명	함성독서	리더	서아현
		모임장소	카페
모임일시	2024.7.25.(목) 18:00~20:00	참석인원	7명

주요내용

- 도서명 : 바깥은 여름
- 활동내용 : e-book 및 종이책으로 독서활동 후 소감 공유
- 소감 : 첫 단편에서부터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며,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위로하고 회복하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. 상실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달하면서도, 그 아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합니다. 고층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단편은, 도시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소외감을 표현합니다. 현대 사회에서 관계의 단절과 타인과의 소통의 부재가 어떻게 사람들을 외롭게 만드는지,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는지를 보여줍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순간들을 통해 인간 관계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. 바깥의 여름은 뜨겁고 생동감 넘치는 계절을 의미하지만, 작품 속 인물들은 그 여름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. 삶의 밝은 면을 잃고 상실의 어두운 면에 갇힌 인물들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. 각 단편의 끝맺음은 여운을 남기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상실과 고독 속에서도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희망과 온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상실과 회복, 그리고 인간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이 책은, 삶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설집이라 생각합니다.

사진

